광주·전남 제조업 10곳 중 7곳 "올 실적 목표 미달"

광주상의, 기업 경영실적 전망 결과 발표 매출 증대 가장 큰 애로요인 '내수 침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입법 의견 높아

광주·전남 제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실적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지역 제조업체의 최 근 경영실적 전망과 주요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 전남 소재 제조기업 134개사를 대상으 로 실시한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 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전망, 경영 애로 요인, 생산 조직 관리상 애로요인, 정기국 회 기간 중 기업이 우려하거나 필요한 입법 분야 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0.1%가 올해 연간 매출이 목표를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목표수준 달성'은 246%, '초과 달성'은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대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내수시장 침체' (57.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출시장 경기 둔화' (23.9%), '시장 경쟁상황 심화' (11.2

%)가 뒤를 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역 제조업의 매출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업이익 전망 역시 70.9%의 기업이 목표치 미달을 예상했으며, 영업수지 실적은 47.0%가 '손익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답변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수익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는 '원자 재가 상승' (41.8%), '인건비 상승' (20.1%), '금융 비용 증가' (15.7%) 등으로 조사됐다. 생산 및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기업자금 사정' (39.6%), '인력수급' (28.4%) 등이 주요 애로로 지적되며, 자

금 유동성과 인력 확보 문제가 모두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입법 분야(복수응답) 로는 '법인세 등 기업비용 증가' (56.7%), '상법 공 법거래법 등 규제 강화' (53.7%), '노사관계 부담 증대' (3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추가적인 제 도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

한편, 기업성장과 경영실적 개선(복수응답) 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58.2%)과 '고용 노동시장 유연화'(52.2%), '위기산업 사업재편 등 지원'(23.1%)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는 기업이 현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산업 지원정책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함을 시사한다.

광주상공회의소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지역기업들이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놓여있다"며 "세제 금융 부담 완화등 기업 활동 여건 개선과 함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농협유통, 올해 첫 감홍 사과 판매

농협유통은 10월24일 사과데이를 하루 앞두고 경북 문경 등지에서 재배·생산된 '감홍 사과'를 올해 처음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델들이 '감홍 사과'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광주은행, 아트광주 리드파트너로 참여한다

26일까지 DJ센터서 광주화루 수상작 전시

광주은행이 오는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전관에서 열리는 '제16회 광주국 제아트페어' ('아트광주')에 리드파트너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행사에서 대표 문화예술사 업인 '광주화루'의 제7회·제8회 대상 수상 작가 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광주화루'는 광주은행이 지역 문화예술 발 전을 위해 2017년부터 이어온 대표 한국화 공모 전으로 역량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 예

술의 저변을 확대해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 예술과 의 상생, 그리고 시민들이 예술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호남 최대 규모의 미술시장인 '아트광주'는 가겠다"고말했다. 올해 총 11개국 94개 갤러리가 참여해 100여개의 한편, 광주은행은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근현대 다를 시작했다. 작품이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소 광주화루 공식 홈페 전시가 열려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 수상자들에게는 에서 만나볼수 있다.

광주은행 신충식 브랜드전략부장은 "광주은 행은 지역민과 함께 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광 주가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과 문화가 어 우러진 지속 가능한 지역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해다

한편, 광주은행은 '제9회 광주화루 공모전' 접수를 시작했다. 작품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광주화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상금 9천만원과 전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채만기자

+



광주지방조달청이 23일 장성군 삼계면 소재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조달청 제공〉

광주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 현장 안전점검

추락·낙하·화재 등 중점 확인

광주지방조달청은 23일 "조달청 맞춤형서비 스로 관리중인 장성군 삼계면 소재 '아열대작 물 실증센터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 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는 전문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설계, 계약, 시공관리 및 감독,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 단계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

르는 가운데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된 것으로 안전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낙하·화재 등 주요 재해위험요인 관리 실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비계·가설 구조물의 안정성 ▲작업자 보호장비 착용 여부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은 그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 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 ^{구식} -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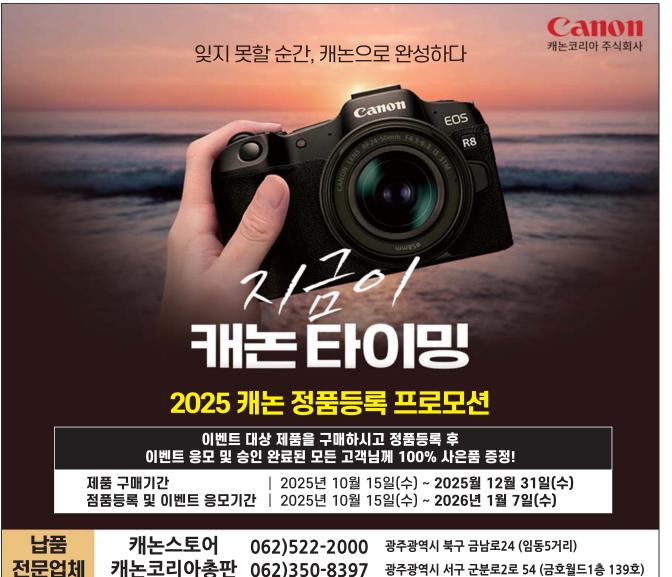
াটি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이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 · 이동식 에어컨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표번호: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idolbom.go.kr



◎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